

## 주요 약력

❖ 성명 : **마강래** 박사  
(중앙대학교 도시계획·부동산학과 교수)

### <주요학력 및 경력>

런던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
서울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 
중앙대학교 경제학사

2020.05-현재: 행정안전부 <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> 포럼 위원  
2020.03-현재: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상생분과위원회 위원  
2020.03-현재: 한국지역개발학회 상임이사  
2020.03-현재: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 
2019.01-현재: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편집위원장  
2017.10-현재: 서울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
2007.03-현재: 중앙대학교 교수  
2019.03-2020.07: 중앙대학교 도시부동산연구소 소장  
2018.08-2020.07: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학과장  
2018.06-2020.02: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

### <주요저서>

-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: 청년과 지방을 살리는 귀향 프로젝트 (2020)
-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(2018)
- 지방도시 살생부 (2017)
- 지위경쟁사회 (2016)

### <연락처>

■ 전화 (055)240-6090    ■ 팩스 (055)240-6091

# 초 청 장



사단  
법인 **합포문화동인회**

## 초대합니다

“청년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.” “청년이 미래다.”  
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구호입니다.

그래서 쇠락해 가는 지자체들이 처방책으로 내놓는 정책  
중에 ‘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’ 이 단골로 들어갑니다.  
우리 지역 마산 창동에서도 그런 사업을 시행했구요. 그러나  
그 효과는 미미하거나 참담했습니다.

지방 중소도시에 분명히 ‘젊은 피’ 가 절실합니다.  
그러나 절실함이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청년에게  
맞는 혁신산업이 대도시의 도심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  
때문입니다.

그렇다면 우리 지역과 같은 지방도시는 어찌할 것인가?  
현실을 냉철히 인정하고 대안으로 ‘베이비부머의 귀향’ 을  
제시하는 **도시계획전문가 마강래 교수**의 의견을 들어 보면  
어떨까요? 고향을 떠나 도시화와 산업화를 주도했던 ‘베이  
비부머 세대(1955 ~ 1963년생)’ 가 가지고 있는 귀소본능  
과 그들의 경제력을 고향 지방도시로 유치하는 이색적인  
제안에 대해 듣고 토론해 보는 시간을 마련 했습니다.

2020년 10월 일  
(사)합포문화동인회  
이사장 강재현 올림

## 제509회 합포문화강좌

..... 주 제 .....

### 베이비부머의 귀향이 왜 모두를 살릴 수 있을까?

..... 강 사 .....

#### 마 강 래 박사

(중앙대학교 도시계획,부동산학과 교수)

- 일 시 : 2020년 10월 15일(목) 오후 7시 15분
- 장 소 : 3.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

※동행하실 분이 계시면 함께 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.